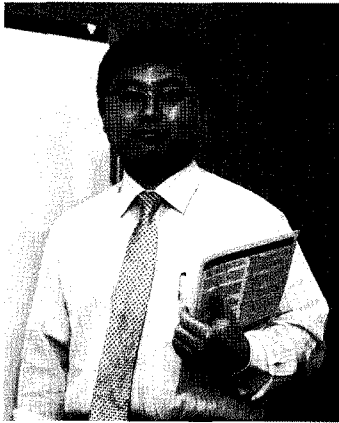


“내가 받은 사랑, 세상에 베풀 것”



취재지원 :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 취재 · 사진 | 연슬기 기자(skyway@safety.or.kr)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립니다

삼십대 중반의 한창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걷지도 못하게 되자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는 가족을 생각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다음에 포기를 하자고 각오를 되새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 홀로 병원 복도의 난간을 붙잡고 수없이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럽기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그때 실감할 수 있었지요.

장애가 없더라도 세상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지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김윤중(43) 씨

절룩거리는 다리와 굳은 팔을 갖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가 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성치 않은 몸으로 굳이 왜 이 일을 택했냐?”고 묻는다. 이 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보험설계사 일을 불편한 몸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걱정 섞인 물음에 그는 웃으며 답한다.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전 보험 덕분에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은 감사함을 알려 다른 많은 분들이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험설계사의 이름은 김윤중이다. 산재의 역경을 딛고 행복을 전하는 보험설계사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그를 만나 보았다.

과로가 불러온 뇌출혈

1999년 3월, 김윤중씨는 서른을 갓 넘긴 나이에 국내 4대 거울업체 중 하나인 B거울회사의 영업소장이 됐다. 타고난 영업력과 활발한 대인 관계로 유리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그를 B거울회사에서 전격적으로 스카웃한 것이다.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에 매달렸다. 당시 그의 주업무는 관할 구역의 대리점 업주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업주를 상대하다 보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술자리도 하



루가 멀다하고 이어졌다.

그렇게 5년이 흐른 2004년 1월 15일, 그는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물건 발주량을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작스런 현기증이 밀려왔고, 그는 힘없이 쓰러졌다.

“휠체어를 타느니 기어다니겠다”

뇌출혈이란 진단이 떨어졌다. 급히 수술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왼쪽 편마비가 오고 만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서른여섯. “큰 애가 3살이었고 둘째가 1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 배속엔 5개월 된 막내아기까지 있었지요. 아픈 아빠를 찾아온 아이들을 보면서 전 그저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 어린 자식들, 연로하신 부모. 어깨가 무거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누워있는 것뿐이었다. 걱정에 걱정이 깊어지자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간이침대에서 꼬그려 잠이 든 노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리를 박차고 무작정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다. 완전히 나올 수는 없었지만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유롭게 쓰진 못했지만 팔도 조금 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차 그를 담당했던 A생명보험의 한 보험설계사가 그에게 조언을 했다. “당신은 보험을 들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느낀 바가 컸다. 즉시 보험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2006년 2월 산재 종결과 동시에 모 보험회사에 입사시험을 봤다. 현재 김운중씨는 PCA생명 ACE라인 전속FA(Financial Advisor)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그는 간접 투자 상품 권유인 자격증, 종합계무설계사(AFPK) 자격증 등을 취득, 이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금융·보험 전문가가 됐다. 또 향후엔 어려운 이웃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도 취득했다.

산재를 극복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삶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만들고 싶다는 김운중씨. 앞으로 그가 어떤 희망일기를 써나갈지 기대가 된다. ☺